

이슬람의 ‘성경변질론’ 비판¹⁾

- 성경에 대한 꾸란의 언급을 중심으로 -

김대옥(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한국교회는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이슬람권의 주장과 관련한 문제들로 고심하고 있다. 투아이즈 네트워크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이미 중동의 한 언론은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고, 이 전략은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중동 이슬람 지도자 선교대회에서 소위 ‘비전 2020전략’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²⁾

이와 관련하여 요사이 우리사회에는 지난 아프간 사태나 예멘 테러의 충격 이후 ‘이슬람의 확산’과 관련된 소식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인천의 중동문화원이 대대적인 아랍국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가 종교편향의 문제로 문을 닫으려다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개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최근의 금융위기를 기회로 이슬람권의 오일머니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나, 특정 방송사의 이슬람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이슬람은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많이 자연스러운 주제가 되었다.

특히 이슬람의 평신도 중심의 선교적 특성을 고려해 보자면, 이슬람권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이슬람 선교 잠재력에 대해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45만~50만(2006년 12월 노동부 발표자료)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이슬람권에서 입국한 근로자들로 무려 8만~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³⁾ 타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신들의 일차적 정체감을 ‘무슬림’에 두며, 국적을 초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연합하고 나아가 그것은 이슬람 선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슬림 유학생들의 단결된 종교활동이나 한국 이슬람 선교 50주년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슬람 확산 움직임, 그리고 전국 각처에 늘어나고 있는 회교사원과 임시기도처 및 이슬람 문화센터, 이슬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의 아랍어 교육 등 한국민의 일상에 이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에 위기감을 갖는 소수의 이슬람 전문가들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의 이슬람의 확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사 파송은 물론, 이슬람의 한국을 향한 전략적 선교노력에 대한 교회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중에

1) 본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3799>. (2008.5.15). 이 주제와 관련하여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한국 내에 ‘이슬람 공포증’ 또는 ‘혐오증’(Islamophobia)을 야기 시킨다는 반대 의견들도 있다.

3) 김도훈, “국내 무슬림근로자 선교를 위한 단체의 역할.”

<http://bbs.kcm.co.kr/NetBBS/Bbs.dll/missiontime1/qry/zka/B2-qCI-t/qqo/PRMY/qqatt/%5E>. (2008.5.15).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 변증가들이 기독교 세계에 접근해 오면서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성경변질론,’ 즉 ‘성경은 변질되었다’라는 도전임을 지적하고 싶다.

무슬림들과 종교적인 대화를 해 본 이라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변질’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수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책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놀랐을 것이다. 이슬람의 종교적 실천에 열심 있는 무슬림일수록 ‘성경은 변질되었다’는 신념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그들의 경전인 꾸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만일 무슬림들과의 선교적 대화에 있어서 그들이 제기하는 ‘성경변질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데 실패한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들을 읽어 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 한들 실제로는 한갓 무의미한 수고만 하게 될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이슬람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기독교는 침묵 일변도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 이슬람 선교전략가인 필 파샬(Phil Parshall)은 ‘우리 영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무슬림의 손 안에서 침몰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⁴⁾ 무슬림들은 이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를 향한 이슬람 선교역량을 집결하고 그 세력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대응적 노력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의 현실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기독교가 이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제시해 주지 않는 한, 성경에 대한 이슬람의 도발적 주장은 ‘기정사실’처럼 오해된 채 계속 확산되어, 결국 기독교는 그 변질론의 악의적인 파급효과에 부수하는 결과들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논지

이슬람의 확산 노력과 기독교의 권위의 원천인 성경에 대한 도전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의 이 주장의 실체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성경변질론이라는 이슬람의 실제적 주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교회에게 성경변질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그 핵심적 변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 이 연구는 단순히 성경변질론에 대항하여 ‘성경을 변호’하려는 수동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꾸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경과의 비양립성으로 인해, 만일 ‘성경이 여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꾸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역설적 긴장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상호적 논의를 자극하게 된다.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은 꾸란의 연약한 진정성을 방어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성경의 변질론을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꾸란의 모순 등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긴장을 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의 진정성을 분명히 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무슬림들이 논리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무슬림과의 난상토론이나 역공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성경변질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⁵⁾

4) 필 파샬, 『십자가와 초승달』, (서울: 조이선교회, 2003), 76.

5) 전호진, 『전환점에 선 중동과 이슬람』, (서울: SFC 출판부, 2005), 199. 전호진 박사는 이슬람 선교는 응당 ‘변증적 선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이슬람의 권위의 근간인 꾸란은 성경의 신적기원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하며, 반면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슬람법(Sharia)과 신학 및 교리의 원천인 꾸란은 ‘기독교의 성경이 변질되었다’라는 이슬람의 ‘성경변질론’(타흐리프<Tahriif> 교리)을 무효로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변증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꾸란에는 성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무슬림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경전을 통해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성경이 왜곡되었다고 믿어왔던 무슬림들에게는 이 논의의 핵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전 자체가 그 변질론을 말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3. 꾸란의 활용 및 연구의 한계와 방법

성경변질론에 관한 무슬림들의 모든 주장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슬람의 권위의 원천인 꾸란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정당하다. 정통 이슬람적 사고를 존중하자면, 아무리 유능한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이든, 권위자들의 파트와(Fatwa)⁶⁾이든, 심지어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의 기록이든 이 꾸란이라는 ‘척도’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그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즉 성경변질론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은 꾸란에서 나와야 최소한 그 주장의 일차적 효용성을 갖는 것이다.

이 논의를 전개해 가기 전에 정돈해 둘 점이 하나 있다. 간혹 복음 증거나 기독교적 변증에 있어서 꾸란 사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꾸란을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계시’로 인정하고 시작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본고에서 필자가 꾸란을 인용하는 것은 꾸란을 ‘계시’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선 그것을 초기 무슬림들이 믿었던 이슬람의 초기 역사자료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꾸란에 무함마드가 성경변질론을 주장했는지, 초기 무슬림들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믿었던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사실적 연구 자료로 꾸란을 활용하고자 한다.⁷⁾

한편, 본고에서는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무슬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모두 다루지 아니하고 다만 ‘꾸란’이 명시하고 있는 성경에 관한 언급에 제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⁸⁾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제 2의 권위서인 하디스의 보충도 필요하고, 성경변질론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주제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논의의 범위를 ‘꾸란’의 언급, 특히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로 제한하기로 한다.⁹⁾ 그리고 가급적 꾸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꾸란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6) 칼리파나 율법 해석학자들(무프티)이 발하는 권위 있는 법적 견해들 일컫는 말이다.

7) Sam Shamoun, "The Quran on the Authority and Integrity of the Biblical Text," Part 2, <http://answering-islam.org/Shamoun/aboutbible2.htm>, (2008. 8. 25) 참조.

8) 물론 꾸란에는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소수 등장하고 있지만 그 구절들 역시 성경자체의 변질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성서의 백성들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비난할 뿐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9) ‘성경변질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해서는 필자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김대옥, 『이슬람의 성경변질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II. 이슬람의 성경변질론 개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적 기반인 성경이 형성된 이래 오늘날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¹⁰⁾ 어느 시점부터 ‘변질되었다’는 무슬림들의 주장으로 인해, 적어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무가치한 ‘변질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Qur'an*)에 앞서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이 ‘성서의 백성들’(the people of the Book)에¹¹⁾ 의해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무슬림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한 경건한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주장 자체를 불편해 하며, 그 주장 자체에 분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흐메드 디다트(Ahmed Deedat)¹²⁾를 비롯한 많은 이슬람 선전가들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적어도 성경과 꾸란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무슬림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성경’은 읽어 볼 가치가 없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혼돈과 해악을 주는 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1. 성경에 대한 이슬람의 신앙

그런데 무슬림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믿는 바와 이 성경변질론은 매우 모순되는 내용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무슬림이라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기본 신앙(*iman*)을 소유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에 대한 신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¹³⁾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¹⁴⁾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꾸란)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성경)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수라 4:136).¹⁵⁾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이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 각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준 책들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계시된 책들이 원래 104개였다고 믿는데¹⁶⁾ 그 중 네 권, 즉 모세(선지자 무사)를 통해 내려주신

10) ‘성경’은 기독교의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무슬림이 이해하는 토라트, 자부르, 인질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11) 꾸란은 ‘이전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소유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 책의 사람들’ 즉, ‘성서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2) 인도출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슬림 전도자(1918-1996). 이슬람 선교(*Dawah*)를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일관했다. 그의 저술과 비디오는 전 세계의 무슬림 청년들에게 널리 영향을 미쳐 이슬람권의 반기독교적 분위기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 *Is the Bible God's Word* 이 있다.

13) 앤 쿠퍼 편, 『우리 형제 이스마엘』, (서울: 두란노, 1992), 53-59 참조.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에 대한 믿음이요, 넷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날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다.

14) 최영길은 꾸란을 번역하면서 ‘알라’ 대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말의 혼돈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 번역서에 따라 ‘알라’를 ‘하나님’으로 통일시켜 사용한다.

15) 본고에서 꾸란은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6)>을 사용한다. 이하 꾸란의 인용시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 ‘수라’를 생략하고 숫자만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꾸란 구절 내에 괄호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자가 사용한 것이다.

‘토라트(Tawrat)’, 다윗(선지자 다우드)을 통해 내려주신 ‘자부르’(Zabur), 예수(선지자 이사)를 통해 내려주신 ‘인질(Injil)’, 그리고 거기에 무함마드를 통해 내려주셨다는 ‘꾸란’(Quran)만 현존한다고 믿는다.

무슬림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에 대한 신앙을 표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경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7세기에 무함마드를 통해 내려준 꾸란보다 ‘앞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 책들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계시하신 ‘거룩한 책들’이기 때문이다.

2. 이슬람의 ‘성경변질론’

이와 같은 거룩한 책들에 대한 신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성경’은 ‘변질’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성경변질론’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이슬람에서는 ‘타흐리프’(tahrif) 교리라고 부른다. 즉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문서들의 단어들에 부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쓰여진 단어들을 변경하든지 하여 이들 경전들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이다.¹⁷⁾ 이 ‘성경변질론’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용어인데, 이슬람사전에 제시된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흐리프(Tahrif) : 본문의 변질(corruption). 이 용어는 꾸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 개의 구절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본문들을 변경하였다(tamper)고 주장하고 있다(2:75; 4:46; 5:13; 5:41). 타흐리프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종교 공동체들이 실제적인 본문의 변형을 통해서나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히브리 성경과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던 무함마드의 도래에 관한 구절들을 지웠다(expunge)는 비난으로 이해된다.¹⁸⁾

압둘라 싸이드(Allah Saeed)는 ‘타흐리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타흐리프는 본래적 의미가 수정된 어떤 문서의 변질로 정의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기록된 본문의 직접적 수정, 본래 정확한 본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임의적인 수정, 생략 또는 가필, 또는 본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그것이다.¹⁹⁾

16) 노오만 앤더슨,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71. 이 가운데 비교적 짧은 100권은 아담, 셋, 에녹,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실되었다고 믿으며, 아브라함(선지자 이브라힘) 문서를 수후프(Suhuf)라 부른다. 그 중 5개만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

17) Norman Geisler & Abdul Saleeb, *Answering Islam: The Crescent in Light of the Cross*, (Grand Rapids: Baker Books), 215.

18) John L. Esposito,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11. 여기에 덧붙여 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첨언하고 있다. “이 용어는 또한 알리(Ali)에게 부여된 신적인 비준에 관해 기록된 꾸란의 어떤 부분들이 제거되었다는 시아파 사람들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 이 ‘타흐리프’는 단순히 성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꾸란에도 적용되는 용어인 것이다.

19) Abdullah Saeed, "The charge of distortion of Jewish and Christian scriptures", *Muslim World* 92 no 3-4 (Fall 2002), 421. 압둘라 싸이드는 몰디브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이슬람학을 공부한 후 호주 멜번 대학에서 이슬람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아시아 언어 및 문화인류학부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인들의 종교 간의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변질론’은 그 ‘본문의 왜곡’과 ‘의미의 왜곡’으로 양분되어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슬람의 성경변질론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두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의미의 왜곡’ 입장은 그들은 성경이 ‘왜곡’된 것은 본문 자체가 아니라 그 ‘해석과 번역’임을 주장하면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꾸란이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²⁰⁾ 이슬람 신학 발전에 기여했던 주요 학자들은 이 입장을 견지했다. ‘본문의 왜곡’의 입장은 성경이 단순히 ‘의미’만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²¹⁾ 오늘날 과격한 성경변질론자들은 대체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무슬림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성경변질론의 수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Abu Ammeenah Bilal Philips)은²²⁾ 한국에 소개한 그의 책을 통해 창조의 목적에 관한 개요를 다루면서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후 추종자들 중 일부가 사탄과 공모하여 성서를 고쳐나갔다. 해당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계시의 상당부분이 상징적 언어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보내셨다. … 그러나 예수가 세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라지자, 소위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가져왔던 분명한 진실은 모호한 어조를 띄기 시작했다. 예수 이전의 사도들이 가져왔던 모든 분명한 복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³⁾

즉 이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이 ‘사탄과 공모하여’ 성서의 내용을 개조시켰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예수님의 복음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왜곡시킴으로 그 내용은 모호해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변질시켰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다분히 모호하고 미신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성경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같은 진술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이슬람권의 성경변질론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발간하여 이슬람 선교와 새신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슬람 개요서에 나온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보자.

그러나 무함마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성서들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사람들에게 의해 없어졌고 예언자 ‘이브라힘’의 성서 또한 아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예언자 ‘다우드’(다윗), ‘무사’(모세), ‘이사’(예수)의 성서들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없어졌거나 잊혀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서 내용의 몇몇 부분을 마음대로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뒤섞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본래의 계시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²⁴⁾

20) 대표적으로 라지(Razi, 1209)와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h, 1905), 바킬라니(Baqillani, 1013), 아비세나(Avicenna, 1037), 가잘리(Ghazali, 1111)가 있다.

21) 대표적으로 이븐 하즘(Ibn Hazm, 1064)과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 1328), 주와이니(Juwayni, 1085)가 있다.

22) 그는 1972년 이슬람에 입교했으며, 메디나 이슬람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웨일즈대학에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바이 The American University에서 아랍어와 이슬람학을 강의하고 있다.

23)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창조의 목적』, 아미나 콕은미 역, (서울: 아담출판사, 2007), 10.

24)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선교위원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알기』,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4), 18-19.

종합해 볼 때, 결국 무슬림의 주요 신앙인 ‘거룩한 책들’에 대한 신앙의 실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곡 되었다’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꾸란 이전에 계시된 책들은 분실되거나 변질되었고, 인간의 말들이 첨가되어 더 이상 진리의 말씀으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실과 변질의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학자들의 진술은 물론, 실제로 무슬림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담고 있는 성경변질론은 이슬람권 내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변질론은 그 주장 자체가 지니는 무게와 중요성과는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일반적인 용어들로만 서술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자신들의 경전인 꾸란이 그 책들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경전의 주장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무함마드와 성경변질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경변질론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을까? 이 변질론이 무슬림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인 만큼, 이슬람이 태동하던 무함마드 당시와 무함마드 사후 어느 경점으로 나누어 이 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변질론의 시발점을 추적해 보도록 하자.

먼저 성경변질론은 무함마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경변질론에 대한 근거는 분명 꾸란을 근거로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전해 들었던 성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고, 심지어 자신을 그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대열 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가 전하던 바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가 전하는 바에 대한 진위 판단의 척도가 되어, 유대인들은 그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결국 그는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게 되었다. 즉 그가 초기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졌던 호감을 반감으로 바꾸고, 이제는 그들 양자를 비난하면서 성경에 관하여도 호의적이던 그가 어떤 이들이 성경에 대한 ‘변질론’을 지지하기 위해 종종 인용하는 모호한 표현들을 남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원숙 교수는 그것을 암시하듯 하는 구절 하나를 예로 들었다. “알라가 그대에게 경전을 내리고, 그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모자라는가?”(29:51)라고 말하는 구절이다.²⁵⁾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대한 꾸란의 언급은 성경이 변질되었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함마드 자신이 성경변질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²⁶⁾ 오히려 무함마드는 꾸란을 통해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믿어야 할 거룩한 책으로 증거하고 있음

25) 진원숙, 『이슬람의 탄생』, 35. 하지만 이같은 구절은 오히려 무함마드는 오해를 반영하여 준다. 실제로 그가 꾸란에 언급하고 있는 성경과 관련한 내용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꾸란에 기록된 성경과의 병행기사를 비교해 보면 성경 기록된 소상한 인명, 지명, 상세묘사 등 그 정밀성의 결핍 등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의 ‘계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단순했고, 그가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예로 그는 유대인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 ‘토라, 네비임, 케투빔’에 대한 이해마저 결여하고 있었다.

26)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방대한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수집본들 역시 무함마드가 성경의 변질을 언급한 대목이 없음을 주지하라.

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무함마드는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써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가리켜 ‘경전의 사람들,’ ‘성서의 백성들,’ ‘그 책의 소유자들’로 번역되는 ‘그 책의 사람들’(Ahl al-Kitab, the people of the Book)이라는 대명사로 꾸란에 지칭하였다(3:64-80, 98f, 113-115, 187, 199; 4:47, 153-161). 그리고는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 ‘그 책의 사람들’처럼 그 거룩한 책을 믿고 따르고 판단하며 살아갈 것을 알라의 이름으로 엄숙히 권하기까지 하였다.²⁷⁾

따라서 무함마드가 메디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의 언급들을 꾸란에 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언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무함마드는 결코 성경변질론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지해야 한다.²⁸⁾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변질고발은 무함마드의 사후 어느 경점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초기 무슬림들은 꾸란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임을 의심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그의 글에서 복음서(인질)의 본문의 진정성을 수용했던 이슬람 학자들의 목록들을 제시해 주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오늘날까지 이슬람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의 대열 속에 있는 이들이다.²⁹⁾

알리 알 따바리(Ali al-Tabari, 855 사망),³⁰⁾ 아므르 알 가히즈(Amr al-Ghakhiz, 869), 부카리(Bukhari, 810-870),³¹⁾ 알 마수우디(Al-Mas‘udi, 956), 아부 알리 후세인 빈 시나(Abu Ali Husain Bin Sina, 1037), 알 가잘리(Abu Hamid Al-Ghazzali, 1111),³²⁾ 이븐 할둔(Ibn-Khaldun, 1406),³³⁾ 사이드 아흐마드 칸(Sir Sayyid Ahmad Khan),³⁴⁾ 파크루딘 라지(Fakhruddin Razi).³⁵⁾

이슬람에 대한 탁월한 변증가요 전도자인 샘 샴문(Sam Shamoun)³⁶⁾ 역시 그의 글 “성경 변질론과 토라”(Tahrif and the Torah)에서 초기 무슬림들은 이전의 성경이 왜곡됨이 없이 온전한 책으로 믿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카밀라 아당(Camilla Adang)의 책³⁷⁾을 인용하여 그 중

2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8) 따라서 무함마드의 언행(Sunnah)을 따르는 무슬림들(Sunni)은 무함마드의 이 본(本)에 주목하여야만 할 것이다.

29) <http://www.bible.ca/islam/islam-bible-not-corrupted-early-muslims.htm>.

30) 이후의 연도는 모두 출생연도를 의미한다.

31) 그는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의 초기 전승인 하디스를 수집하였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기 위하여 꾸란에 있는 수라 3:72, 78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32) John L. Esposito, 94. 가장 최고의 이슬람 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샤리(Ashari) 학파 신학자, 법학자, 신비주의자. 그는 이븐 하즘을 추종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33) ‘역사서설’로 유명. 그 역시 이븐 하즘을 추종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초기 이슬람 학자들의 가르침을 믿었다.

34) 알리가르 대학(Aligarh College)의 설립자. “우리 무슬림들의 의견에 있어서, 문자적 성경변질(tahrif-i-lafzi)이 실제로 있었음은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35) John L. Esposito, 263. 샤피이(Shafii)와 아샤리 학파에 속했던 이란출신 철학자요 꾸란 주석가. 그는 무함마드의 조카였던 이븐 압바스(Ibn Abbas)의 권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토라와 인질의 본문을 변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명한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본문의 변질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성경들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폭넓게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6) 샘 샴문(Sam Shamoun)은 쿠웨이트 출신 미국인으로 이슬람 변증과 관련하여 가장 탁월한 온라인 사이트인 ‘answering-islam’의 주요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곱 명의 학자들의 이름을 매우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아부 알 라비 본 알라이스(Abu'l-Rabi' b. al-Layth, A.D. 8c.), 알리 본 랍반 알 따바리('Ali b. Rabban al-Tabari, 810 출생),³⁸⁾ 아부 무함마드 압둘라 본 무슬림 본 꾸타이바(Abu Muhammad 'Abd Allah b. Muslim b. Qutayba, 828), 아흐마드 본 아비 야콥 본 자파르 본 와흐브 본 와디흐 알 압바시(Ahmad b. Abi Ya'qub b. Ja'far b. Wahb b. Wadih al-'Abbasi, 9c 초), 아부 자파르 무함마드 본 자리르 알 따바리(Abu Ja'far Muhammad b. Jarir al-Tabari, 839), 아불 하산 알리 본 알 후세인 알 마수우디(Abu'l-Hasan 'Ali b. al-Husayn al-Mas'udi, 893), 아부 바 크르 무함마드 본 알 타이입 분 자파르 본 무함마드 본 알 까심 이븐 알 바킬라니(Abu Bakr Muhammad b. al-Tayyib b. Ja'far b. Muhammad b. al-Qasim <ibn> al-Baqillani, 950).³⁹⁾

이 사실은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이슬람 형성기나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성경변질론은 꾸란의 직접 증거자인 무함마드 자신을 통해 증거된 바가 없으며, 부카리(870년 사망)와 같은 무함마드 언행록(하디스)의 수집가들을 통해서도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들 사이에서 성경이 변질되었음이 주장된 바가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성경을 두고 고민할 이유마저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초창기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이 성경변질론은 어떻게 후대에 이르러 생겨나게 되었을까?

4. 성경변질론이 제기된 시점과 근본 이유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대부분의 논쟁의 기초에 이 성경의 진위문제가 놓여있다는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한 첫 인물은 이븐 하즘(Ibn Hazm)이었으며, 그 시기는 1064년이었다고 본다.⁴⁰⁾ 즉 이슬람이 발흥한지 무려 4세기가 지나도록 무슬림들 사이에서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전까지의 많은 위대한 무슬림 학자들은 누구도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을 감히 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콜린 채프먼(Colin Chapman)도 이러한 성경변질론이 무슬림 변증가들의 글 속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2세기 이후였음을 밝혀주고 있다.⁴¹⁾ 다시 말해 타흐리프 교리는 적어도 무함마드 사후 약 430여년이 흐른 시점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후대의 무슬림들이 '성경은 변질되었다'는 타흐리프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먼저 하즘에게 있어서 그가 마주하게 된 성경과 꾸란 사이에 있는 차이와 상충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경변질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단순히 이슬람을 방어하기 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성경변질론은 역사적 사실(史實)과는 별도로 이슬람이 주장하는 꾸란의 진정성과 우위성 확보를 위한 선택적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

37) Camilla Adang, *Muslim Writers on Judaism & the Hebrew Bible from Ibn Rabban to Ibn Hazm*, (Brill Academic Publishers, 1997).

38) 이후의 연도는 모두 출생연도를 의미한다.

39) Sam Shamoun, "Tahrif and the Torah," <http://answering-islam.org/Shamoun/tahrif.htm>. (2008. 12. 5).

40) <http://www.bible.ca/islam/islam-bible-not-corrupted-early-muslims.htm>. 본문은 이븐 카셈(Ibn Khazem)으로 소개하고 있다.

41) Colin Chapman, *You God and Do the Same*, (Church Missionary, 1983), 53.

명대학교 진원숙 교수는 이 형편을 잘 설명해 준다.

이슬람교는 알라의 거룩한 책들을 유대, 기독교도가 변조시켰다고 비난해 왔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변조되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오류도 섞여 있으므로 무슬림들은 ‘꾸란’과 기독교의 성서가 상충할 경우 ‘꾸란’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꾸란이야말로 그 이전의 가르침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원래 뜻을 바로잡은 마지막 계시라는 것이다.⁴²⁾

진원숙 교수의 언급과 같이 이슬람은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경전인 꾸란만큼은 ‘처음 계시가 오늘날까지 변질됨이 없이 보존되어 왔으며, 심지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꾸란은 최후의 성서이며 동시에 이전 계시의 내용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 한권만의 충분성을 강조한다.

꾸란은 본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가 바뀌었거나 빠지지도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신 것과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후의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꾸란 이전의 성서들에 나타난 중요한 가르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초기의 성서들을 분실하고 왜곡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⁴³⁾

따라서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서들을 믿어야 하지만 처음 성서들은 잃어버렸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었으므로 무슬림들은 “꾸란”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⁴⁴⁾ 1세기 전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했던 새뮤얼 즈웬머(Samuel Zwemer)도 무슬림들은 이전 계시들이 심지어 ‘이 마지막 책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적었다.⁴⁵⁾

이 성경변질론이 제기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들을 매우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제시되는 원인은 바로 ‘꾸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무함마드가 오리라는 언급’(61:6)이 정작 성경에는 없다는 점이다.⁴⁶⁾ 게다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꾸란이 극도로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은 ‘성경의 변질됨’의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이다.⁴⁷⁾

특히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요, 그를 통해 계시된 꾸란은 이전 계시를 확정하는 최후의 경전’이라는 이슬람의 교리에 따르는 일차적인 문제는, 성경과 꾸란 사이에는 이미 양립할 수 없는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꾸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성경이 변질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했다. 성경의 기사가 살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한 꾸란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론으로 성경변질론을 창안하고

42) 진원숙, 35.

43)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선교위원회, 21-22.

44) Ibid., 19.

45) Samuel Zwemer, *The Moslem Doctrine of God*, (Cornwall: Diggory Press, 2006), 10.

46) 이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저서 166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

47) 또한 ‘계시’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이 주장은 강화된다. 즉 꾸란이 알라의 직접적인 언명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성경은 해설자나 역사적 서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들어 후대의 첨가나 변질 등의 이유로 보기도 한다.

말았다. 즉 ‘이 두 책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은 성경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손주영 교수는 성경과 꾸란에서 발견되는 ‘상충관계’는 이전계시의 수용자들의 ‘인위적 첨삭’에 의해 변질된 결과라는 이해로 이 성경변질론을 설명한다.

무슬림들은 모세오경, 복음서, 시편 등 앞선 경전들의 내용이 보완, 정정, 확증되어 완벽한 것으로 계시된 것이 꾸란이라고 믿고 있다(수라 5:16-17 참조). 종래 계시된 종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교리상 상충관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인위적으로 개조된 요소가 첨삭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이슬람에 의해 비로소 순정케 되었다는 것이다.⁴⁸⁾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무슬림들의 꾸란에 대한 일방적 충성심이 기독교 경전의 변질론을 이끌어 오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꾸란에 대한 충성심인데, 그것은 성경변질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성마저 잠재우고 만다. 성경변질론은 근본적으로 꾸란의 진정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의 그것을 불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 성경변질론은 꾸란의 유일성과 탁월성, 온전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창안된 이론이다. 즉 변질론자들은 이 ‘성경변질론’을 꾸란의 진정성에 대한 토대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꾸란의 탁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성경은 변질된 폐기물처럼 다루어졌다. 그것은 이미 이슬람의 종교적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정통적인 교리가 되어버렸다.⁴⁹⁾ 애석하게도 무슬림들에게 ‘꾸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은 어느 날 아침에 ‘변질된 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III. 꾸란을 통한 성경변질론 비판

우선 성경변질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라면 성경 자체에서 출발하는 방법(내증)과 성경 외부에서 고찰하는 방법(외증), 그리고 변질론을 주장하는 이슬람 내부에서 출발해 보는 방법(꾸란과 하디스) 등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성경변질론이라는 무슬림들의 이러한 의심의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슬림들의 권위의 원천인 꾸란을 살펴보아야 한다. 게다가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내증과 외증들을 통한 검증은 이미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변질론자들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경변질론이 우선 이슬람 내부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주장들을 꾸란에 근거하여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꾸란의 권위를 부인할 수 있는 무슬림은 없다. 『옥스퍼드 이슬람 사전』은 꾸란의 권위에 대하여 ‘무슬림들은 꾸란의 해석과 암송에 자신의 최상의 정신과 재능을 헌신하여야 하는데, 꾸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⁰⁾ 무슬림

48)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꾸란 속의 예수를 중심으로,” 『종교신학연구』, (1993), 10.

49) 압둘 마시흐, 『무슬림과의 대화』, 이동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46. 마시는 이를 ‘반성경적’이며 ‘교활한 논박’이라 했다.

들에게 꾸란은 권위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그들의 삶을 규명하는 ‘모든 것’이다. 즉 꾸란이 무슬림의 총체적인 삶의 체계와 이슬람 세계의 가치관의 원천이 됨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⁵¹⁾ 게다가 꾸란은 무슬림들의 삶 속에 ‘무소부재’한 위치를 점한다. 따라서 ‘성경변질론’을 다루는 무슬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꾸란의 활용은 피할 수 없다. ‘대화는 상대방이 가진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무슬림들이 가진 것은 바로 꾸란’⁵²⁾이기 때문이다. 꾸란이 무슬림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며, 것처럼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란을 통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다 하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진입하기에 앞서 우선 노만 가이슬러와 압둘 살리브(Norman Geisler & Abdul Saleeb)가 정돈한, 꾸란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에 대하여 부여하는 칭호들을 살펴보고자 하자.

‘하나님의 책’(the Book of God),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인간을 위한 빛과 인도’(a light and guidance to man), ‘모든 문제들에 대한 판결’(a decision for all matters), ‘안내와 자비’(a guidance and mercy), ‘명쾌한 책’(the lucid Book), ‘조명’(the illumination<*al-furqan*>), ‘이전 율법서를 확증하면서 안내와 빛을 주는 복음서’(the gospel with its guidance and light, confirming the preceding Law),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a guidance and warning to those who fear God).⁵³⁾

‘성경변질론’의 실상을 귀로 듣기만 했던 독자들은 이와 같은 성경에 관한 꾸란의 언급들을 보고 적잖게 놀랐을지도 모른다. 꾸란이 성경에 대해 언급하는 ‘대명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귀한 표현들뿐이어서 ‘변질론’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꾸란이 밝히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고자 하자. 놀라움은 계속될 것이다.

1. 꾸란은 성경의 신적기원을 인정하며, 따라서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한다.

꾸란은 성경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계시임을 명시하며, 스스로 그 ‘존재 목적’을 가리켜 ‘모세의 책들과 이전의 책들이 진리임을 확증한다’(confirm what had come before it. *musaddiqal-limmaa bayna ya-dayhi*)고 반복적으로 밝히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 온 것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그대에게 그 책(꾸란)을 계시하노라(3:3).

이것(꾸란) 이전에 모세의 성서가 안내서로써 그리고 은혜로 있었으며 아랍어로 된 이 성서(꾸란)가 그것을 확증하며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46:12).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꾸란)는 진리로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있나니 실로

50) John L. Esposito, 256.

51) 김동문, 『이슬람 신화개기, 무슬림 바로보기』, (서울: 흥성사, 2007), 213.

52) Ibid., 215.

53) Norman Geisler & Abdul Saleeb, 213.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35:31).

꾸란 자체에 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이는 꾸란이 오늘날도 ‘존재’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 성경이 ‘진리’(*haq*)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꾸란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요 ‘안내’와 ‘은혜’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다’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이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책들이 ‘진리’임을 밝히고 그 길을 따르라는 언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은 신약(*Inji*)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이라(5:46).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는 그들이 성서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느냐 너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지 않느냐”(3:70).

2. 꾸란은 성경 안에 복음과 진리, 판결과 빛, 안내와 교훈이 담겨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구약(*Tawrah*)을 내리사 복음(*Huda*)과 빛(*Nuur*)이 그 안에 있음이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함이라...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판결치 못하는 자 그들은 불신자들(*Kaafirun*)이라(5:44).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은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guidance)과 광명(light)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admonition. *Maw'idat*)이라(5:46).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계시한 것이 없도다 하더라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냐...(6:91).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Ra'fatan wa Rahmah*)와 은혜를 주고자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설명해 주고자하셨고 그를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으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신약을 주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중에 사랑과 자비를 주었노라...(57:27).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니 바른 일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은혜를 완성하고자 했으며 모

든 것을 설명하여 주고자 함이며 복음과 은혜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함 이라(6:154).

그러므로 성경으로 판결하지 않거나 그에 실패하는 자는 불신자요(*Kaafiruun*. 5:44), 행악자(wrong-doers. *Daalimuun*)인 것이다(5:45).

3. 꾸란은 성경이 진리의 척도임을 증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진리에 대한 척도가 되며 판결을 위한 규범이 된다.

...만일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거늘 구약을 내게 가져와 읽어보라고 말하여라(3:93).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성경’을 요구하라고 권면하는 장면이다. 즉, 무함마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여전히 ‘진리의 척도’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판결을 구하려 그대에게 오겠느냐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규범이 있지 않느냐 그런 후에도 그들은 돌아서니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5:43).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케 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치 아니한 자 그들은 죄인들(those who rebel)이라(5:47).

나아가 성경은 무슬림들에게도 진리의 진위를 재어보는 척도이다! 꾸란과 성경을 비교하여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꾸란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의 변질’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되었던 꾸란에 대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해답을 찾으라는 것으로, 심지어 무함마드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10:94).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냈으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인간이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노라(16:43).⁵⁴⁾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계시를 내린 선지자들도 사람이었거늘 백성들이여 너희(무슬림)가 알지 못한다면 메시지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라(21:7).

4. 꾸란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으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성경을 믿어야 한다. 꾸란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전에 내려 보낸 성경을 믿으라고 명령한다.

54) 필자는 기독교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진리의 진위를 ‘아지 못하는’ 이슬람 성경변질론자들에게 답하고자 한다. 21:7 참조.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 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 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2:41).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4:136).

이들은(앞서 언급한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인도함을 따르라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너희에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백성을 일깨워 주는 것에 불과하니라(6:90).

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악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 가로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이라(29:46).

따라서 ‘성서를 불신’하는 행위는 그들이 성서의 백성들(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꾸란은 비난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왔을 때 구약에서 확증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2:101).

5. 꾸란은 무슬림들이 ‘성서를 믿는 자’들임을 명시하며, 또한 당연시 한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다 우리는 칭취하고 복종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2:285).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할 따름이라(2:136).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 말하라(3:84).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들의 모든 성서를 믿는데도 그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도다(3:119).

무슬림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다. 심지어 ‘성서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다 해도 무슬림들은 성서를 믿는 자들’인 것이다(3:119). 즉 무슬림들이 성경을 불신한다거나 변질론을 주장하는 것은 꾸란이 제시하는 무슬림의 정체성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꾸란은 무슬림들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무슬림이든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할 따름’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6. 꾸란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존해 왔음을 증거한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거늘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는 충실한 무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우는 참 신앙인도 있노라(3:113).⁵⁵⁾

그들이(성서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과 그들 주님이 계시한 것을 준수했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 맛보았을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올바른 길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악의 길을 따랐더라(5:66).

본문은 자기들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언급된 구절이다. 그럼에도 꾸란은 최소한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 말씀의 보존에 실패했다는 진술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 중에 참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참 신앙인’이라 인정했던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 있었음을 칭송하고 있다. 그 책들이 ‘왜곡’되어 있었다면 이 꾸란의 진술은 무의미하다.

꾸란은 종종 성경과 관련하여 성서의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난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계시된 성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진리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이(성서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과 그들 주님이 계시한 것을 준수했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 맛보았을 것이라...(5:66).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준수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인도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이 분명 많은 무리에게 적의와 불신을 증가시키나 신앙이 없는 무리를 보고 슬퍼하지 말라(5:68).

그들이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준수했다라면 바른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성경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증거 해 주는 것이다.

7. 꾸란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약속한다.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사들을 믿는 사비인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2:62).

꾸란은 성경변질론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꾸란과 같은 선상에 놓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심지어 사비인들⁵⁶⁾이 성경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55) 유수프 알리(Yusuf Ali)는 이들을 ‘결국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로 해석한다. Abdullah Yusuf Ali, *The Holy Qur'an with Arabic Text*. (New Delhi: Farid Book Depot Ltd, 2001) 155.

56) 최영길, 20. “‘사비인’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천사들을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없는 의미상의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5:69).

8. 꾸란은 성경을 부정하는 이들이 곧 불신자요, 따라서 방황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명사는 ‘불신자’(Kaafirun)이다. 꾸란은 다른 어떤 ‘성경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불신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 불신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니라(29:49).

하나님이 구약을 내리사 복음과 빛이 그 안에 있음이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함이라. …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판결치 못하는 자 그들은 불신자들이라(5:44).

그런데 그 불신자에게 따르는 보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다. 이는 변질론자 자신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계시된 ‘성경’을 믿으라 명령하셨음에도 만일 그들이 성경이 변질되었다면서 ‘부정’한다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 되어 ‘크게 방황’할 것이며 엄하고 무서운 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4:136).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를 내렸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하는 자 그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3:4).⁵⁷⁾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보다 사악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거역함에 대한 대가로 무서운 벌을 주리라(6:157).

꾸란은 성경에 대한 불경한 태도와 불순종 등의 시도들을 경고하고 있다. 성경이 변질되었기에 따르지 말라거나, 조심하라는 등의 경계는 꾸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9.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조 또는 변질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거룩하게 보존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위조할 수도, 따라서 위조될 수도 없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으며(6:34).

우리(하나님)가 실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리라(15:9).

57) 10:63f; 2:59 참조.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분 외에는 어떤 안식처도 발견치 못하리라 (18:27).

꾸란은 엄중히 선언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보호’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이나 꾸란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전제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헛되이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선언들 앞에서 근거를 상실하고 만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안식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길 교수는 85:22을 해설하면서 사프와트 타파시르를 인용하여 “꾸란의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감소하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교훈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⁵⁸⁾ 꾸란에 따라 무슬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조될 수 없음을 긍정하고 있다.

10.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보존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승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한다.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를 내렸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하는 자 그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강하사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니라(3:4).⁵⁹⁾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치 아니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10:63-64).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조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승리’를 직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보존은 ‘하나님 자신의 승리’의 문제와 연관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패퇴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서서 ‘누군가가 그분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변질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이 구절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화 되고 만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 *Allahu akbar*)!⁶⁰⁾ 그를 막아서서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 꾸란의 기본적인 단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배반하고 변질시키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설령 위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⁶¹⁾

변질론자들은 극구 이 말씀이 단지 꾸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디크르, *dhikr*)은 꾸란에서 꾸란과 토라 모두에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⁶²⁾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진리되신 그분의 속성에도 부합되는 언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시는 것

58) 최영길, 1209. 사프와트 타파시르, 제 20권, 42.

59) 10:63f; 2:59 참조.

60) ‘에덴’(prayer call)이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으로써, 무슬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중의 하나이다.

61) 최영길, 368. 최영길 교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한다는 표현을 ‘그분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꾸란이 ‘변조’를 주장해도 성경의 문자적 수정이나 변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62) 쇼켓 모우케이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3. 수라 21:48, 50, 105를 보라.

을 어느 누가 변질 시킬 수 있겠는가? 무슬림들의 믿음과 같이 성경도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면 역시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것이다. 꾸란도 이를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척도는 꾸란에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에 제시한 꾸란 본문의 어디에도 ‘성경변질’의 암시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꾸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있기에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성경의 변질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꾸란은 그 ‘이전 계시’라 통칭하는 하나님의 책들인 성경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과 빛을 담고 있다’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사용하여 무슬림들에게 성경이 진리임을 ‘확증’ 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라와 복음서를 가지고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전에 계시된 성경을 믿어야만 한다. 심지어 무함마드도, 그 추종자들도 의심이 생긴다면 성서의 백성들에게 물어야 한다.’ 성경이 꾸란을 판단하는 척도인 것이다! 무슬림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꾸란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며 따라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물론 무슬림도 성경을 믿어야 하며, 성경의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해 주고 있다(2:41-42, 136, 285; 3:3, 4, 70; 4:47, 136; 5:43-47, 68; 6:91; 10:94; 21:7; 29:46 등).

성경에 대한 꾸란의 입장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꾸란의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시도에 관해서는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불가능성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신 4:1-2; 사 8:20; 마 5:17f; 24:35; 계 22:18-20). 따라서 꾸란의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입장은 ‘성경변질론’이 설자리를 없게 만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란은 바로 ‘성경을 제시’해 주면서 무슬림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도록 명령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른 길’(Siratta al-Mustaqeem)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⁶³⁾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꾸란이 이전 계시들에 대한 봉인이라 한다면 꾸란은 이전의 성경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경계와 경고를 명백히 했어야만 했다. 이미 본문이 심각하게 왜곡된 책들을 두고 ‘그 책에 복음과 빛과 안내가 있으니 믿으라’ 한다거나 ‘성서의 백성들은 그 책들을 근거로 판단하라’고 명한다거나, ‘무슬림들은 이전에 계시된 성경을 믿으라’고 명한다거나, 심지어 예언자에게도 ‘성서의 백성들에게 물으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꾸란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정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로써 꾸란은 이슬람의 ‘성경변질론’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는 견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VI. 결론

1. 꾸란에 없는 성경변질론

위에서 논의한 꾸란의 성경에 관한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꾸란에는 성경변질론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꾸란이 성경을 언급할 때에는 경외하는 태도로 신중히 다룬

63)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마다 암송하는 수라 1장은 이 유일한 간구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그것은 꾸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안에 빛과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란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무슬림들도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할 책으로 증거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꾸란의 언급을 통해 성경이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다는 변질론자들의 주장은 경전적 근거를 잃는다. 앞서 언급한 꾸란의 모든 구절들을 ‘변경’시키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지 않는 이상 성경변질론은 불가능하다. 셋째, 꾸란은 성경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모종의 시도들에 대해 그들이 성서의 백성들이든 무슬림들이든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길이요, 따라서 파멸의 길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란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송실대 김영한 교수의 지적처럼, 오히려 꾸란은 성경에 대하여 마치 ‘복음전도자’처럼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⁶⁴⁾ 무슬림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정당성까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꾸란의 성경에 대한 내적인 증거는 변질론자들 자신들이야말로 그릇되었음을 더욱 뚜렷하게 밝혀준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언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꾸란을 근거로 성경의 변질을 주장하는 무슬림들은 자신의 주장들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규범적 권위인 꾸란에서 성경의 신적기원과 권위는 물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도 성경변질론을 주장하는 것은, 꾸란에 따르면 불신적 행동이요 따라서 자신을 불신자요 반역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동시에 ‘크게 방황하는 자’임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복종(*islam*) 할 것인가 아니면 변질론자들의 근거도 없는 주장들에 미혹되어 성경의 진리를 거절하고 방황의 길에 설 것인가?

2. 숙고해야 할 문제들

이슬람의 성경변질론자들이 성경에 대한 변질론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기독교의 성경과 실질적인 ‘이별’을 주장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란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현존하는 성경을 인용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꾸란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성경이 홀로 있을 때는 변질된 책이고, 그것을 꾸란 해석을 위해 인용할 때는 온전한 책이라는 뜻인가? 그러면서도 정작 무슬림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무슬림의 믿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책이라 공공연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꾸란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책들을 도외시한 채, 이전 계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꾸란만 읽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꾸란으로 들어가 성경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고자 하면, 당장에 주어지는 판단은 ‘성경변질론자들은 과연 그들이 고소하는 성경은 고사하고 꾸란이라도 제대로 읽고는 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꾸란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관하여 지극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동원하여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요,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할 표본이요 규범임을 증

64) 김영한,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적 차이”, 『대학과선교』 제 5집 (2003), 61.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물론 무슬림들도(심지어 무함마드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을 두고, 혹여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성경을 표준삼고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꾸란은 이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행위는 불신자요, 심지어는 죄인이요, 반역자로 정죄하고 있다.

꾸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꾸란의 언급을 무시하고 성경변질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는 이가 있다면, 꾸란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해보기를 권한다.

- . 꾸란이 성경에 대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인가?
- . 꾸란은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가? 꾸란에는 앞서 논한 긍정 표현들을 대체할 만한 부정적 고발들이 있어서 앞의 구절들을 모조리 무효화 시키는가?
- . 꾸란은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담긴 새로운 꾸란이 발견되었는가? 지금까지 수집되지 않은 꾸란 구절이 별도로 있어서, 그곳에는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 . 이슬람에서는 변질론을 주장하기 위해 꾸란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해도 되는가?
- . 성경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무엇이 더 우선시되는 권위요 근거인가? 꾸란인가? 종교인들의 가르침인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인가?
- .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다고 주장함에 반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 꾸란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말씀을 변경하고 왜곡하도록 방치하는 분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시시각각 변경하는 분인가?

3. 제언

먼저 성경변질론을 진실이라 믿는 무슬림들에게 건네는 제언이다. 꾸란이 이와 같이 성경에 관하여 재삼재사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종교의 규범적 권위로 인정하는 꾸란의 언명을 무시한 채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무슬림들은 그릇되었다. 사실 꾸란에 따르면 그와 같은 행동은 ‘그릇됨’을 넘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의 죄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그 책을 계시한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서 떠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들이야 말로 꾸란에서 경고하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감추고, 변질시키는 무리’가 되어 ‘방황의 길’(1:6f)에서 헤매고 만다.

꾸란에 따르면 진실한 신자들(*Mu'mineen*)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이다(2:4). 또한 모든 무슬림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꾸란)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토라와 인질)과 선지자들이 계시 받은 것(나머지 성경)을 믿나이다”(2:136)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꾸란에 따르면,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진정한 ‘복종하는 사람’(무슬림)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한 신자들의 몫이 아니다. 그 아무도 꾸란에서 성경의 변질을 명시하는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만일 꾸란이 성경의 변질을 주장하고 있다면, 성경변질론자들은 수고로이

성경을 펼쳐가며 변질의 증거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구절들을 명확히 제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굳이 그에 대해 불편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성경변질론자들이 들으면 당황하겠지만, 실제로 이 성경변질론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기독교는 그 태동 당시부터 정경화를 통해 ‘게시의 완결’을 명시화 했고,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분명히 하면서 여타의 추가적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는 꾸란과의 연속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이미 오랜 세월이 걸쳐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 내부의 자유주의 성경비평학자들에 의해 그 진정성에 대해 수많은 시험대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이 성경변질론은 다만 이슬람 내부에 있는 연약한 무슬림들에게 성경 무용론을 설파할 뿐이요, 아직 성경에 대해 아지 못하는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을 혼동시키는데나 일조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변질론에 대한 실제적인 피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무슬림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가장 최대의 피해는 ‘진리를 찾는다’ 하면서도 바로 ‘그 진리’인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믿는 무슬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1:6)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성경의 진정성을 믿고 성경 안에 계시된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쉽게 ‘그 길’을 찾았을 것이지만,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배척한 결과는 아직도 그들을 ‘방황의 길’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4:136).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제언이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성경변질론은 꾸란 연구를 통한 결과가 아니며, 따라서 보편화 되어있는 무슬림들의 성경에 대한 불신은 변질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함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꾸란을 정독한 경험이 별로 없는데다, 또 앞으로 정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경변질론’(Tahriif)을 극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변에는 변질론을 가르치는 선동가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꾸란의 아랍어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아랍 무슬림들에게도 또 하나의 ‘외국어’인데다 아랍 무슬림들의 문자 해독률 역시 낮은 현실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꾸란을 통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꾸란은 ‘읽어야 하는 것, 즉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스스로 해석의 잣대를 대도록 허락되지는 않고 있음을 볼 때,⁶⁵⁾ 무슬림들이 꾸란을 읽고 성경변질론을 극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와의 자유로운 종교적 소통에 장벽조차 많은 곳이고 보면, 성경변질론에 경도되어 있는 무슬림들이 ‘참된 진리’에 이르는 데는 난관들이 참으로 많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은 오직 ‘성경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本)’이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접하는 ‘성경’의 실체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기록된 성경을 손에 넣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들 주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미디어와 여러 뉴스매체들을 통해 알게 되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을 듣고 ‘기독교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변증 노력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그 책의 사람들)은 ‘그 책’을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변증법이 참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늘날도 무슬림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살아내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읽힐

65) 김동문, 101.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꾸란이 가리켜 제공해 주는 아름다운 대명사인 ‘그 책의 사람들’은 곧 ‘그 책’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참고도서>

- 가브리엘, 마크 A. 『끝나지 않은 2000년의 전쟁: 기독교 vs 이슬람』. 김명신 역. 서울: 도서출판 통크, 2006.
- 김대옥. 『이슬람의 성경변질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김도훈. “국내 무슬림근로자 선교를 위한 단체의 역할.” <http://bbs.kcm.co.kr/NetBBS/Bbs.dll/misstime1/qry/zka/B2-qCI-t/qqo/PRMY/qqatt/%5E>. 2008년 5월 15일 검색.
- 김동문. 『이슬람 신화개기, 무슬림 바로보기』. 서울: 홍성사, 2007.
- 김영한.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적 차이”. 『대학과선교』 제 5집, 2003.
- 모우캐리, 쇼켓.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한국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빌랄 필립, 아부 아미나. 『창조의 목적』. 아미나 곽은미 역. 서울: 아담출판사, 2007.
- 마시흐, 압둘. 『무슬림과의 대화』. 이동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꾸란 속의 예수를 중심으로.” 『종교신학연구』. 1993.
- 앤더슨, 노오만.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전호진. 『전환점에 선 중동과 이슬람』. 서울: SFC 출판부, 2005.
- 진원숙. 『이슬람의 탄생』. 서울: 살림, 2008.
-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6.
- 쿠퍼, 앤, 편. 『우리 형제 이스마엘』. 서울: 두란노, 1992.
- 파살, 필. 『십자가와 초승달』. 서울: 조이선교회, 2003.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선교위원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알기』.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4.
- Ali, Abdullah Yusuf. *The Holy Qur'an with Arabic Text*. New Delhi: Farid Book Depot Ltd, 2001.
- Chapman, Colin. *You God and Do the Same*. Church Missionary, 1983.
- Esposito, John L.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Geisler, Norman & Abdul Saleeb, *Answering Islam: The Crescent in Light of the Cros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7.
- Saeed, Abdullah. “The charge of distortion of Jewish and Christian scriptures,” *Muslim World*. 92 no 3-4, Fall 2002.
- Shamoun, Sam. “*Tahrif and the Torah*.” <http://answering-islam.org/Shamoun/tahrif.htm>. 2008년 12월 5일 검색.
- _____. “*The Quran on the Authority and Integrity of the Biblical Text*,” Part 2, <http://answering-islam.org/Shamoun/aboutbible2.htm>. 2008년 8월 25일 검색.
- Zwemer, Samuel M. *The Moslem Doctrine of God*. Cornwall: Diggory Press, 2006.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3799>. 2008년 5월 15일 검색.

<http://www.bible.ca/islam/islam-bible-not-corrupted-early-muslims.htm>. 2008년 12월 5
일 검색.

<주제어> 이슬람, 꾸란, 코란, 성경변질론, 타흐리프